

집합주거에 설정되는 매개영역의 계획수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sign method of the intermediate-zone of the multi-family housing

김길순* / Kim, Kil-Sun
이현희** / Lee, Hyun-Hee

Abstract

In the nowadays years our city's housing environment which progresses rapidly social-economical development is posited the dissatisfied present condition. this multi-family housing brings about the individualism of the nowadays city, and makes muddy neighborhood meaning, and the quality of the nowadays city dwelling house environment becoming worse. This study was started with the cognition of the need of intermediate-spaces, in the our life in the neighborhood city. Intermediate-spaces, has same meaning to come into the action of consciousness of the neighborhood.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city housing, we should clearly recognized the individual territory after we set the proper in intermediate-zone in the multi-family housing. Therefore, this study inquires into the meaning of intermediate-zone, and catches the formation technique of intermediate-zone and the method of plan through the investigation of the use cases of the multi-family housing which is established intermediate-territory. and then I analyze the role of the formative space by this method. By this method, I grope for the effect of the use through the alternative plan of the design method of the intermediate-zone. If the methods of play use the role in the nowadays multi-family housing, high quality will build up.

키워드 : 집합주거, 매개영역, 계획수법, 실태조사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주거는 그 사회의 문화수준, 거주자의 개성을 반영한 환경을 창조하는 것으로 인간의 주거양식은 그 시대의 생활변천에 따라 변화하여 왔다. 현대 우리의 도시는 경제의 발전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주거양상이 도시화, 집중화된 결과 집합주거는 도시인의 필수 불가결한 주거형식이 되었다. 주거의 집합화는 제한된 면적에서의 주택난 해소 뿐만 아니라 공동생활을 통한 개인의 이익추구와 다양한 활동공간을 공유하고 상이한 공간적, 사회적 경험의 공유를 통한 주민 상호간의 공동의식을 소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실제 우리 주변에 건설되는 집합주거는 양질의 주거환경을 목표로 이루어졌으나 고층화 및 과밀화과정으로 결국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집합주거내에 거주자들이 공유하는 공간에 매개공간을 설정

하여 거주자와 주거환경과의 교류를 도모하는 근린상호의 공간을 형성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즉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에 매개영역을 적절히 설정하여 개개인의 영역이 명확히 인식되고 동시에 근린 및 공유의식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여 공동사회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집합주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의 하나로 매개영역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의 개념을 정립하고, 집합주거에 설정되는 매개영역의 계획수법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근거로 집합주거에 매개영역이 설정되었다고 판단되는 사례를 대상으로 계획수법에 따른 기준 틀을 설정하여 정립하고 사례를 직접 관찰함으로써 그 특성을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를 통하여 매개영역의 계획수법을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집합주거의 계획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례로 선정된 대상은 집합주거 내에 주민의 공동생활 및 교류가 이루어진 사례를 선정, 계획의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그 연구

* 정희원, 경원대학교 환경·정보대학원 공학석사

** 정희원, 경원대학교 실내건축학과 조교수, ph.D.

범위를 설정한다. 먼저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과의 관계 및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의 관계를 알고 이러한 영역 및 공간에서 설정되는 매개영역에 대해 정립한다. 그리고 집합주거에 설정될 수 있는 매개영역을 공유하는 거주자간의 커뮤니티 관계를 사례의 관찰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매개영역에서 보여지는 환경요소 즉 건물의 외관, 가로에서부터 현관까지의 어프로치, 시야, 빛, 재료, 색채 등의 특성을 사례의 관찰을 통해 조사,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하고자 한다.

1.3. 조사의 개요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집합주거에 설정된 매개영역의 역할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1998년 6월부터 1999년 8월까지 기간 중 각 조사대상을 2회 이상 방문하여 관찰, 기록하였다. 조사방법은 주로 물품과 주변부의 행위를 관찰하며 준비된 도면에 표기하는 것으로 하였다. 이 조사를 통하여 매개영역의 역할을 알고 매개영역의 공간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차이점을 파악하여 추후 계속적으로 분석한다.

2.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에 관한 고찰

2.1. 매개영역과 관련한 집합주거 계획상의 문제점

주거는 집을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 또는 생활의 장소로서 주택 뿐 아니라 개개인, 행하는 주택 안과 밖에서의 활동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¹⁾ 한편 주거는 이웃, 지역사회 및 우리를 둘러싼 모든 환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뜻을 지닌다.

현대의 생활변천에 따른 도시화에 의한 집합주거는 도시인의 주거형식으로 필수 불가결하다. 주거의 집합화는 개개인의 생활과 개개인의 이익추구를 도모하며 다양한 활동공간을 이용하여, 상이한 공간적·사회적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거주자간의 공동의식을 갖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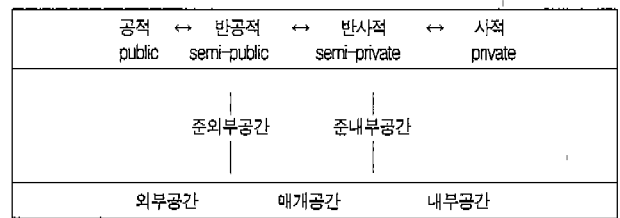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날의 집합주거환경은 편리함과 효율성을 높이고 지나치게 경제성, 기능성만을 추구한 주거공간을 형성하여 환경, 장소성과 커뮤니티 등의 질적으로 저하되는 문제를 야기하게 하는 경향이 적지 않다. 현재의 집합주거의 상황을 토대로 거주자와 그 영역측면에서 집합주거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특성으로 나타난다. 첫째, 공간적, 심리적으로 개인영역이 합리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조성이 결여되어 있다. 준 사적(semi-private), 준 공적(semi-public)공간의 결여로 내부사적공간이 공적공간과 직접 연결되어 공간적으로 갈등이 야기되며 접촉으로 인한 교류형성이 저해된다. 둘째, 개인영역의 확보와 더불어 개개 단위세대 간의 과도한 격리를 완화할 수 있는 영역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단위세대의 프

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웃간의 교류를 강화할 수 있는 영역이 필요하다. 셋째, 외부와 내부의 연계적인 반 내부(semi-internal), 반 외부(semi-external)공간의 활용이 미비하다는 점이다. 고층화로 인하여 지면과의 접촉이 제한된 거주상황에서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은 외부와의 접촉을 유도하여 커뮤니티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되는 특징이 간과된 것이다. 넷째, 현재의 계획수법에 따른 집합주거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출입구 등의 공유공간에서는 심리적인 긴장감이 유발되기 쉬우며, 공간의 익명성을 초래하여 공간에 대한 소유의식 및 소속감이 저하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에 영역성을 부여하여 세대간의 소유의식을 유도하여 이웃간의 커뮤니티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상 인간과 주거환경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점차 개선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겠다.

2.2. 집합주거에 설정되는 매개영역의 의미

일반적으로 매개영역의 개념은 영역의 각 단계 중 중간의 범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중간층은 하나의 공간이나 영역으로 형성되어 그 자체가 목적이 있는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또한 원활한 접촉을 위한 매개체로서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매개영역이라 한다. 즉 공간적인 연속관계에 의해 형성된 공간으로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기능을 가진 공간을 의미한다.³⁾

크리스토퍼 알렉산더는 주거의 내,외부공간에 각각 매개적 공간개념인 반공적공간과 반사적공간을 설정하여, 인간환경과의 공간구성체계를 4가지의 공간구성 즉 사적, 반사적, 반공적, 공적공간으로 구분하고 있다.⁴⁾ 반사적공간은 각 주호를 연결하는 영역으로 한정된 사회적 접촉이 이루어지고 상징적 소유의 정도가 강하며 반공적 공간은 공적인 성격이 보다 강한 곳으로서 집 근처에 위치하여 위계적 구성과 명확한 구획에 의해 근원에 대한 일체감과 소속감을 심어줄 수 있는 영역이다. 이러한 구분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살펴보면 2개 이상의 상이한 공간이 접촉할 때, 접촉되는 부분에 각 공간들의 특성을 띤 중간적인 성격을 가진 매개영역이 도입됨으로써 공간의 변이가 원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활동체계에 의한 일정한 궤도를 갖게 되는데 궤도상의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사이에는 이러한 매개적 단계가 존재하게 된다.

3)이근수,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에 있어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0, p.21
4)Christopher Alexander, Pattern language, N.Y, Oxford Uni press, 1977, p.102

1)강순주·김상미, 현대주거학, 교문사, 서울, 1977, p.12
2)한창임, 공동주거 내부공간에서의 중간영역의 설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5, p.4

본 연구에서 다루는 것은 위의 도식화한 구분에 준한 매개적 공간으로서 이러한 영역은 이웃과의 접촉이 일어나는 근린의 장소로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전제가 되는 영역으로 사적영역을 핵으로 하는 그 주변공간으로 한정한다. 즉 집합주거에서 설정될 수 있는 구체적인 매개영역의 대상은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 홀, 단위세대의 진입공간 등이다. 이러한 영역은 단순히 이동하기 위한 기능으로서가 아니라 공간감을 느끼도록 과정적 공간이 형성됨으로써 이동한다는 개념 외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매개영역이 이른바 집단의 사적영역으로서, 그리고 생활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바람직한 이웃관계의 형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이 되기 위해서는 매개영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여과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매개영역에서 이웃과의 접촉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갖추어져 있어 그 공간에 대한 상징적 소유의식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매개영역이 주거에 필요한 물리적인 환경을 만족시켜주고 주민들에 의해 의미있는 장소로 인식될 때 매개공간에 대한 소속감이 증대되고 방어적 기능을 수행하며 이웃간의 접촉을 증대한다.

2.3. 집합주거에 설정되는 매개영역의 형성수법

매개영역이란 공간적 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공간으로서 그 공간이 삽입되는 공간내의 위치적 관계에서 기능적 특성이 파악된다. 매개영역은 그 공간과 특성을 가지고 상이한 기능이 만나는 곳에서는 대립관계를 중화하여 양 공간의 완충공간의 역할을 하고 보편적인 기능끼리 만나는 곳에서는 양 공간을 체계적으로 연결시킨다. 즉 매개영역은 공간적인 연결관계에 따라 두 가지 형태로 집약될 수 있다. 하나는 인접공간이 서로 충돌하여 상대공간을 침투하여 상호 관입됨으로써 발생하는 공동공간으로서의 매개영역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접공간 간에 제 3의 공간이 형성되는 매개영역이다.

이와 같은 매개영역 형성의 방법과 그 특징을 정리하면 <표 1> <표 2>와 같다. 이러한 매개영역의 형성을 집합주거의 공유공간에 적용하여 그 형성수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매개 영역의 형성 수법 - 공간의 상호 관입

형성법	결과적 형태	특징
상호맞물린 공간관계는 부분적으로 매개공간이 형성되도록 맞물려 겹쳐져 있는 두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개개의 원 공간은 본래의 개별적 특성을 보유하면서 연결된다. 공동공간은 양 공간의 특성을 보유한다.
		맞물린 부분은 두 개의 공간 중 어느 한 공간으로 합체될 수 있으며 합체된 공간의 일부가 된다.
		맞물린 부분은 본래의 두 공간을 연결짓거나 분리하는 공간으로서 자체의 독립된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

5) Francis D.K.Ching, 건축의 형태·공간, 국제사, 서울, 1985. p.182, p.186

<표 2> 매개영역의 형성수법 - 제 3의 공간에 의해 연결

형성법	결과적 형태	특징
<p>일정한 거리를 두고 분리되어 있는 두 공간은 제3의 매개공간으로서 상호연결되거나 연관성을 갖는다. 두 공간의 관계는 그들의 공동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제3의 본질에 따라 좌우된다</p>		매개공간은 상호의 기능적 연결을 나타내기 위하여 두 개의 공간과는 형태와 방향을 다르게 한다.
		매개공간뿐 아니라 두 개의 공간도 공간의 모양, 크기, 형태 등에 따라 연속된 공간과도 같이 될 수 있다.
		매개공간은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의 공간을 연결하기 위하여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일련의 공간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기다란 선형으로 할 수 있다.
		매개공간의 형태는 상호 연결되는 두 공간의 형태와 방향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매개공간은 크기가 충분하다면 두 공간의 상호관계속에서 유력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자체에 관련된 공간들을 구성할 수도 있다.

2.4. 주거공간에서 매개공간의 유형

다음은 우리 전래 마을의 가로와 현대 및 외국의 집합주택에서 보여지는 매개영역의 유형을 제시함으로써 <표 1><표 2>에서 설정한 매개영역의 유형을 추출해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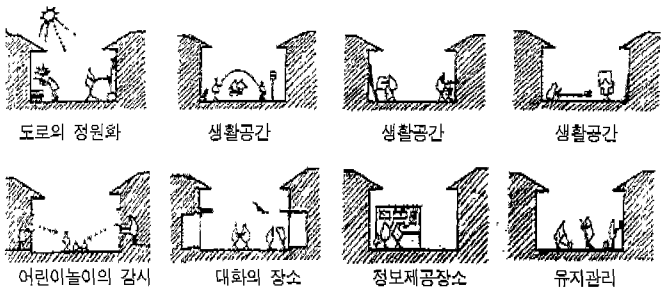
(1) 우리나라 주거공간에서의 매개영역

매개영역의 개념설정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사항중의 하나는 우리 고유의 마당과 길의 구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매개영역에 대한 이론적 이해로 그치지 않고 우리 고유의 마당과 길에 대한 고찰을 통해 매개영역에 대한 본연의 의미와 기능을 유출할 수 있다.

전통주거에서 마당의 성격과 의미를 재해석하는 방법으로 간략하게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전통주거에서 마당은 여백공간, 과정적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마당은 외부공간과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내부공간 사이에 두 공간을 연결하는 중간에서 매개공간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매개공간은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여러 공간 사이에서 공간끼리 서로 연결시키는 통로로서의 역할 또는 건축공간과 주변의 자연공간을 유기적으로 융합시키는 매체가 된다. 상이한 공간의 기능과 성격을 완화시켜, 공간의 상호침투와 연속성을 이끌어내 주는 매개체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은 우리의 주거공간 속에 존재한다

또한 단순한 통과공간에 불과할 수 있는 길도 기능과 용도, 생활과 공간의 적절하고 다양한 질서가 존재하는 적극적인 생활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단독주택은 담으로 인한 개별적인 영역으로 구분되어 지지만 집합주택은 단지내의 통과도로인 길과 공동마당, 그리고 건물 본체의 배치와 계획으로 옥내의 복도와 이동공간, 나아가서는 일상적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까지 생활의 상호관입이 이루어진다.

주거와 거주지에 놓인 가로는 인간의 물리적이며, 사회적 행위를 위해 사용되는 실제적인 통로로서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연결을 해주는 매개영역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가로공간의 이용형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전통적 가로공간의 개념은 점차 약화되고 단순한 통로의 역할만이 강조되고 있다.



<그림 1> 전통적 가로공간의 이용형태

위에서 우리 고유주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매개공간은 실내,외공간에 연속과 분절을 반복하며 주거공간에 다양함을 부여한다. 우리의 고유 가옥에서 인용할 수 있는 매개공간을 재발견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의 주거 집합체에 도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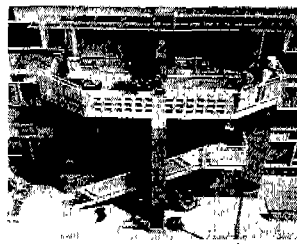
(2) 외국의 집합주거에서의 매개영역

서양 건축 작가들의 작품에 있어 중정이 발달되고 가로공간을 매개영역으로 활용한 예를 찾아볼 수 있으며, 또한 현대의 작가들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그 맥이 이어오고 있다.

도시에서의 거주에 대한 헤르만 헤르쯔버거의 관심을 문제로서 공적 및 사적영역간의 조화, 매개영역의 중요성을 작품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그림 2><그림 3>에서 보여지는 헤르만 헤르쯔



<그림 2> 생활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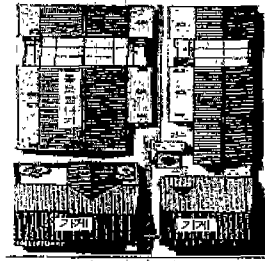
<그림 3> 주거단지의 외관부분

버거 Haarlemmer Houttuinen Housing은 생활공간으로서 가로를 도입하고 그 주변공간을 구성하는 계단실, 중정, 발코니공간 등이 생활공간을 향해 열려져 있어 거주자들 간의 교류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⁷⁾ 이 작품에서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골목길이 도입되었고 공적 공간과 사적공간 사이의 매개적인 공유공간들이 세심하게 계획되었다. 이것은 단위주택과 단지의 연계성, 영역의 명확한 구분과 경계의 유연한 연계성, 각 공간의 개성화, 그리고 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그림 4><그림 5>의 일본의 일부 전통 밀집주거지(나가야)에서 보여지는 집합주택은 주거지의 특징과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반영한 것으로서 전면에는 상가가 세워져 있고, 사이의 좁은 가로로 들어가면 세대 사이의 생활공간이 형성되어 있다. 좁은 토지에 주거가 밀집되어 있어 세대의 생활공간이 가로로 확장되어 주거와 가로와의

6) 안옥희 · 신경주, 주거관리학, 학지사, 1994, pp.153-154
 7) 손세관, 사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집합주택의 과거와 현재, 건축문화, 9803, p.183

연계를 피하고 공유영역으로의 접근을 유도하여 이웃과의 대면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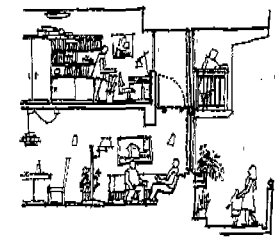
<그림 4> 도쿄의 가로와 나가야



<그림 5> 도쿄의 주요구 전경



<그림 6> 카사이그린타운의 세대출입구



<그림 7> 주거의 특종의 공용통로

일본의 현대집합주택에서도 생활영역을 대상으로 한 매개영역의 설정 예를 찾아볼 수 있다.<그림 6><그림 7>의 카사이 그린타운에서 계획하고자 한 것은 거주자의 영역성을 촉진하기 위하여·공유공간에 대해 개방적인 주호를 계획한 것이다. 주호 근방의 영역이 형성되면 근린교계가 활발해지게 되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⁸⁾

이와 같이 공유공간을 생활영역으로 배치하고 단위 주호와 관련지어 계획한 많은 사례들을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점은 효율성만을 내세워 공간을 최대한도로 이용하는 대신 다양한 매개공간을 적절히 설정하여 거주자의 생활의 질을 고양할 수 있도록 주변환경을 추구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에 대한 조사

3.1. 조사대상의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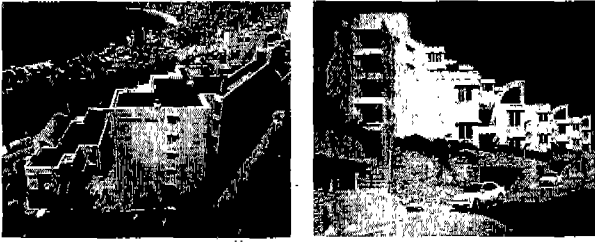
본 연구는 우리 도시주거의 집합과 도시주택에 관한 것으로서 그 속에는 도시주거공간의 위계에 대한 일정한 개념이 매개공간의 스케일과 프로그램, 그리고 공간의 특성에 따라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집합주거 계획 시에 매개영역의 형성이 의도되었다고 생각되는 국내의 집합주거 작품을 선정하여 사진자료와 도면, 실태조사를 통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표 3> 사례 리스트

구분	해운대빌리지	캐릭터빌	파크타워	공익빌라	탑빌라
소재지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1505-3,4,7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467-18	서울시 강남구 성내동459-9,10	서울시서대문구 홍제2동145-25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242-2,3
규모	지하1층,지상3층 지하1층,지상5층	지하 4층 지상 26층	지하 2층 지상13층	지상 11층	지하 1층 지상 8층
세대수 평형대	40평대: 24세대 50평대: 7세대 60평대: 2세대	70평대: 6세대 80평대: 31세대	65평형:19세대	38평형:53세대	42평형:16세대 30평형:3세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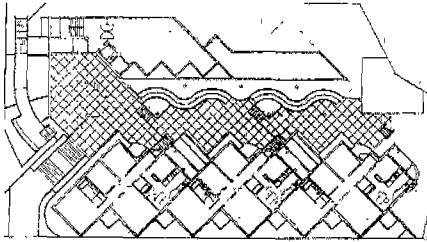
8) 스즈키 시게루미, 현대주거일본읽기, 이현희 역, 국제사,1999, pp.68-72 pp.149-152

(1) 해운대 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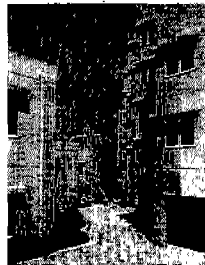


<그림 8> 해운대 빌리지 전경

<그림 9> 해운대 빌리지 건물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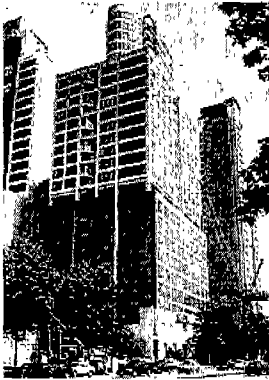
<그림 10> 해운대 빌리지 평면도



<그림 11> 전성공간

건물은 멀리 해변을 바라보도록 전면 동을 낮추고 후면에 위치한 동을 45도 어긋난 방향으로 배치하였다. 경사로의 통로와 중정, 전정은 중앙의 부지에 좌우로 배치된 주호에 따라 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구성은 층상에 의해 좌우 입면이 중첩된 형태이다. 주요 통로에서 전정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에 상하의 단차, 진행 방향에 따른 변화, 빛과 그림자 등의 체험을 통한 변화가 있다.

(2) 캐릭터 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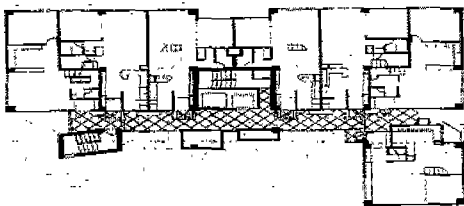
<그림 12> 캐릭터빌 건물외관



<그림 13> 세대주변공간



<그림 14> 세대현관



<그림 15> 캐릭터빌 주거부 평면도

이 작품은 도시형 주상복합형식으로서 주거부, 오피스텔, 근린상업시설로 구성된 고층 건물이다. 1층부터 10층까지는 근린시설이며

11층부터 26층까지 고층부는 공용주택으로 구성된 단일건물이다. 주거부는 'ㄱ'자 모양의 평면이다. 복층형으로서 각 주호의 입구부는 두 개층마다 공유하는 편복도에 연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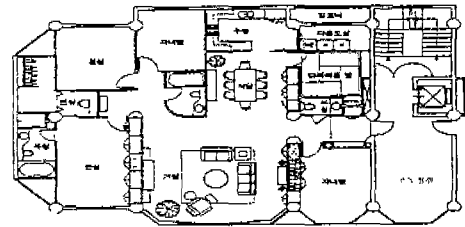
(3) 파크타워



<그림 16> 파크타워 건물외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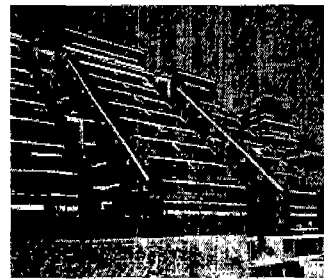
<그림 17> 정원공간



<그림 18> 파크타워 평면도

주상복합형식으로서 저층부는 근린시설, 3층부터 최상층까지는 주거부로 구성된다. 1층의 진입공간을 거쳐 세대의 주거부로 들어서면 네 가구가 공유하는 공용정원공간 <그림17>로 연결된다. 공용정원공간은 복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남측에 위치하여 조망과 일조에 유리하며 식재공간으로 조성하여 거주자간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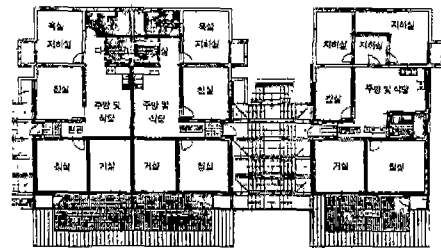
(4) 공익빌라



<그림 19> 공익빌라전경 및 외관



<그림 20> 계단부 전경



<그림 21> 공익빌라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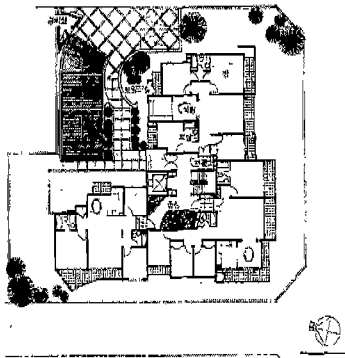
경사지형의 대지의 특성을 그대로 살려 단위세대를 set-back시켜 배치하였다. 각 세대의 진입공간인 계단부는 수직으로 뻗어 단지전

체에 안정감을 주고 사선과 수직의 조화를 피해 변화를 유도한다. 주요통로는 계단부로서 급격한 상하의 단차가 있다.

(5) 탑빌라



<그림 22> 탑빌라 건물외관



<그림 23> 탑빌라배치 및 평면도



<그림 24> 전정공간



<그림 25> 세대입구

일정한 평면으로 이루어지는 아파트라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서로 다른 부정형 구성을 가진 단위주택이다. 1층 현관에 들어서면 각 세대의 진입부분에 비교적 여유를 둔 출입을 위한 매개공간을 설정하고 있으며 각 세대는 다양한 형태의 변화를 피하여 공간에 대한 소속감과 소유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4. 조사대상의 매개영역에 대한 역할 분석

4.1. 조사 대상의 매개영역 계획수법에 대한 분석

전 장에서 살펴 본 사례들에 설정되는 매개영역의 형성에 있어 일반적인 공간의 결합관계를 적용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표 4>에서 공간의 결합관계에 의해 형성되는 매개영역의 형태를 파악하며 또한 매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주자간의 공유영역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 공유영역과 단위세대입구와의 연결관계를 분석한다. 조사대상 집합주거에 활용된 매개영역의 계획수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개공간의 설정수법에 있어서는 각 기능을 분절하고 커뮤니티공간을 확보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 결과 계단의 분절, 계단참의 확장, 소규모의 커뮤니티 공간 확보 등을 통하여 공유영역을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확보하면서 이웃과의 유대감을 조성한다. 둘째, 매개공간의 확보에 있어 공간의 확장성 즉 1층 세대의 접지 진입을 통한 정원 확보, 각 세대의 전정도입 및 현관입구에 알코브를 주어 공간 확보, 세대 진입부의 방향의 변화를 통하여 개인영역이 확보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확보됨으로써 공

유공간으로의 접근이 유도된다. 셋째, 공간의 형태의 변화 및 형태요소의 도입, 공간 크기 및 배치상의 변화를 통해 시각의 접근성을 유도하고 자연스러운 어프로치가 이루어지며 공간의 식별성을 높여 개인 및 공유영역의 독자성을 형성한다.

<표 4> 조사대상의 매개영역 계획수법

구분	공간의 결합관계	공유영역의 위치	단위세대와의 관계
해운대빌리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 공간들에 의해 결정된 형태 · 제 3의 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구 주변의 공유공간 · 세대출입구 주변의 공유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호주위에 알코브를 형성 · 바닥면에 위로의 변화
캐릭터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의 공간에 의해 연결 · 선형으로 구성 · 맞춤형 형태 (복도공간+내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적으로 공유하는 유일한 통로 · 각 층 주민 전체가 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호주위에 알코브 형성 · 바닥면에 위로의 변화 · 주호 주위에 낮은 담을 구성
파크타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3의 공간에 의해 연결 · 매개공간은 복층으로 단위세대의 서로 다른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 개층의 네가구가 공유하는 보이드룸 공용정원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위에 낮은 담을 구성
광의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의 공간에 의해 연결 · 매개공간이 계단부로서 사선의 선형으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행 계단이나 입구 부분의 한정된 공용공간 · 일반적인 공유영역의 부재 · 서로 다른 비슷한 사유공간을 가진다고 하는 공동의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호 주위에 알코브를 형성하여 영역 확보
탑빌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세한 공간의 형태 · void 형태, 세대간을 브릿지, 발코니 형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층에서 최상층까지 시각적으로 공유하는 정원공간 · 세대간을 다리형태로 연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간을 브릿지형태로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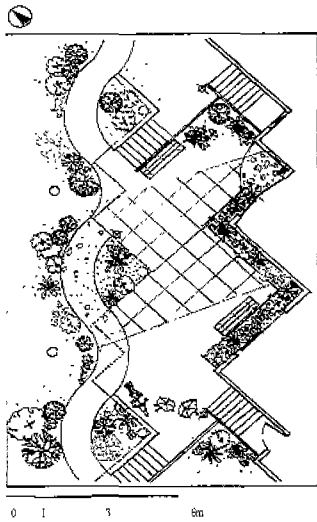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하여 매개영역을 설정함으로써 외부에서 내부로의 진입시 공간의 위계에 따른 점층적인 공간의 전이를 유도하

여 이동하는 각 공간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소속감을 강조한다. 사례의 조사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계획된 매개영역의 형성은 현대의 집합주거의 제반 문제에 대한 부분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조사대상 매개영역의 사용실태에 대한 분석

이 연구의 관심은 단순히 도시 집합주거의 분류와 정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질의 향상을 위해 어떻게 계획하고 실현해 갈 것인가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실제의 주거지를 관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이미 주민이 거주하는 실존하는 주환경에로부터의 관찰과 분석으로부터 실제로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 집합주거 환경의 기본적인 원리와 구조를 파악한다. 아래와 같이 사례를 조사함에 있어 주변부의 물품이나 행위를 관찰하여 매개공간의 활용이 어떻게 어느정도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1) 해운대빌리지 ACCESS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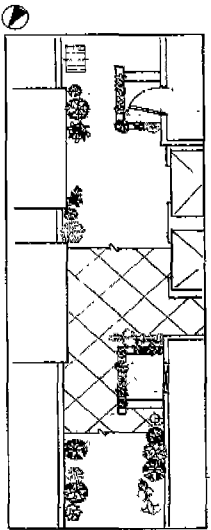
<그림 26> 전정부 상세도



세대주변에 벤치가 놓여있고 여러개의 화분들이 놓여있다. 세대입구에 우산이 펼쳐져 있다. 세대의 현관문이 열려있고 내부의 소리가 밖으로 들린다. 세대창호를 중심으로 화단이 조성되어 있으며 세대의 창호가 열려있으며 방범을 위한 덧창은 찾아볼 수 없다.

관찰을 통한 현황조사 : 전정공간이 거의 외부에 위치하여 일기변화에 따른 활동량의 차이를 보이며 외부인의 통제역할이 이루어진다.

(2) 캐릭터빌 복도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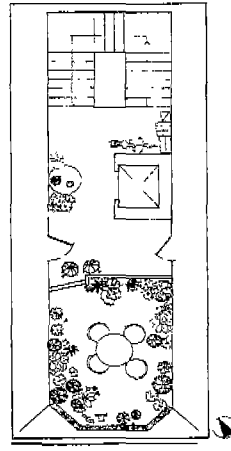
<그림 27> 복도부상세도



이불등의 건조물이 걸린 건조대가 세워져 있다. 세대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고 세대 현관주위의 낮은 담위에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다. 세대주위의 낮은 담에 자전거가 묶인 채로 세워져 있다. 세대 주위에 크고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다.

관찰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 복도공간의 공간 구획과 세대주위의 공간 활용을 통해 세대간의 교류공간이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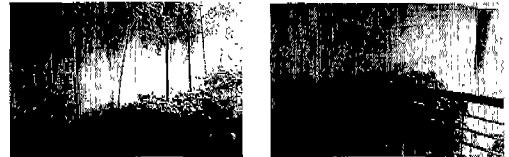
(3) 파크타워 정원공간



<그림 28> 정원부 상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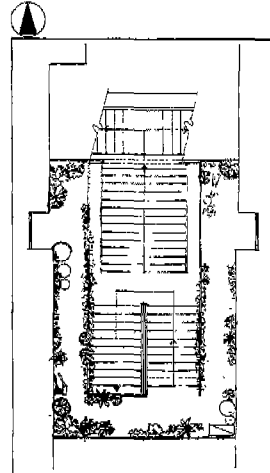


작은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위에 제철이, 메모지, 꽃병등이 있다. 세대의 현관문이 열려져 있기도 하다. 세대현관주위에 젖은 우산이 펼쳐져 있다. 복도공간을 거의 차지하는 여러그루의 큰 관목들이 심어져 있다. 약 4-5인용의 야외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정원을 정리하는데 쓰이는 모종삽, 화초분무기 등의 물품들이 놓여 있다.



관찰을 통한 현황조사 : 정원공간은 실내로서 더운 지방에서 자생하는 크고 작은 관목과 화초들로 식재공간으로 조성되어 있고 관목들 주변에 테이블과 의자 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주민간의 교류공간,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정원부로 향하는 세대의 출입문이 일부 열려 있어 세대내부의 소리가 정원쪽으로 들리고 있다.

(4) 공익빌라 계단부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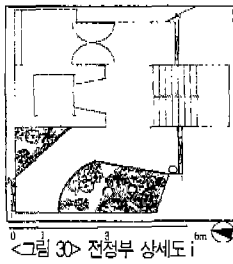
<그림 29> 계단부 상세도



여러 개의 화분들이 계단부에 놓여있고 계단의 난간부분에는 식물들이 넝쿨을 이루고 있다. 세대 현관주위에 장독항아리와 의자가 놓여있다. 복도 청소에 쓰이는 듯한 빗자루와 쓰레기받이 등의 청소용구가 놓여 있다.

관찰을 통한 현황조사 :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들간에 인사가 오가는 모습이 보인다. 계단부와 이어지는 전정공간에 화단을 조성하여 세대와의 구분역할을 하고 있다. 저층부 세대는 접지하여 전정공간이 거주자들의 이동공간 및 세대의 진입공간의 역할을 하며 상층부 세대의 전정공간은 각 세대만의 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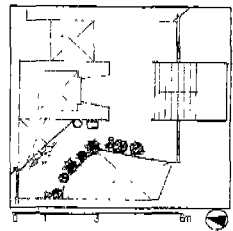
(5) 탑빌라 전정공간



<그림 30> 전정부 상세도 I



모서리공간을 화단으로 꾸며 대나무와 화분용, 돌, 징이리 등의 물품을 이용하여 세대간의 정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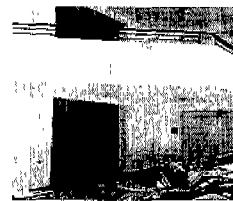
<그림 31> 전정부 상세도 II



전정공간에 재활용물과 소화기가 놓여 있다.

세대현관주위에 여러개의 화분들이 놓여 있다.

세대현관주위에 자전거, 화분들이 놓여 있다.



관찰을 통한 현황조사 : 세대의 전정공간은 보이드된 공간으로 구성되어 세대의 출입이 다른 세대에서도 간접적으로 인식된다. 출입시 세대 내부의 소리가 들려서 복도 및 계단과 세대별 진입공간이 세대간의 매개체적인 공간으로 그 영역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의 사례는 기존의 주거형식보다는 새로운 형식으로서 매개영역의 구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성에는 어느정도의 한계는 있으나 선정 예에서 보여지는 매개영역은 비교적 활발한 공간활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은 오늘날 주거의 집합에 있어 생겨나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현대의 도시상황에 적합한 도시주거의 형을 찾아내고자 한 것으로서 집합주거에서 공간의 결합에 의해서 매개영역이 형성되고 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주민들의 생활과의 관계로 나타나는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 매개영역의 개념을 도출하고 매개영역에 대한 고찰과 매개영역이 설정된 집합주거 사례에 대한 조사, 분석을 통하여 집합주거에서 매개영역이 형성될 수 있는 계획상의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거공간에서 매개영역의 유형에 따른 우리고유의 가옥과 외국의 집합주거에 설정된 매개영역에 대해 살펴본 결과 매개영역의 설정위치와 활용에 있어 매개영역은 이동공간 뿐만 아니라 세대간의 교류공간, 생활공간의 연장공간으로서 활발한 이용이 이루어진 반면 현대 우리 도시의 대부분의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은 단순한 진입공간

또는 통과공간 정도에 그치고 있다. 둘째, 현대 도시 집합주거작품 중 매개영역의 설정에 있어 그 활용도가 높으리라 예상되는 일부 사례를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행한 결과, 매개영역의 구성에 있어 다양하고 활기찬 행위를 수용하는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 셋째, 선정한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을 그것의 형성 수법에 따라 유형별로 작품을 구분하여 조사한 결과 매개영역의 형성수법 및 공간, 형태구성에 따른 차별화된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따라서 위의 결론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집합주거에 설정되는 매개영역의 계획수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1) 매개영역의 설정에 있어 집합체 내에 따로 마련된 공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들이 항상 이용하는 복도, 이동공간인 계단홀, 엘리베이터 홀, 현관 진입공간 등을 활성화하여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의 구성 및 그러한 분위기의 조성만으로도 소규모의 교류가 이루어지는 공유하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하리라 본다.

2) 공유영역으로서의 매개영역으로 설정될 수 있는 전정부, 중정부 등은 그 수치관계나 빛의 상태, 특징의 위치 등이 매개영역을 특정짓는 요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예로 매개영역의 위치를 과감히 남측 및 전방에 설정하여 빛, 전망을 확보하고 계단참이나 발코니등 소규모의 특정위치를 활용하여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3) 공유영역인 복도 및 계단 홀, 엘리베이터 홀은 주호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 그 통로의 적절한 축선의 방향, 거리, 공간 구성 등을 만들어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복도와 세대입구 사이에 알코브로 형성된 공간을 두거나 건물 자체에 각도 및 방향의 변화를 주어 공간을 구성할 수 있다.

위에 제시된 방향에 적용되는 매개영역은 우리의 집합주거의 상황에 보다 현실적인 대처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제까지의 주거상황은 큰 규모의 집합체에만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와 같은 집합주거의 매개영역의 설정은 거주자의 생활패턴이나 규모의 차이에 따른 적용에 있어 불합리가 적은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 현 도시주거환경의 변화에 부합될 것이라 본다.

참고문헌

1. 송광섭, 우리의 도시주거 들여다보기·내다보기, 미전사, 1995.
2. Francis D.K.Ching, 건축의 형태 공간, 국제사, 1985.
3. Francis D.K.Ching, 실내 디자인 표현 개념과 요소, 박민철 역, 집문사, 1989.
4. 이근수, 집합주거 매개영역에 있어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90.
5. 한창임, 공동주거 내부공간에서의 중간영역의 설정에 관한 연구, 홍익대 석사논문, 1985.
6. 스즈키 시게부미, 현대주거일본읽기, 이현희 역, 도서출판국제, 1999
7. 강순주·김삼미, 현대주거학, 교문사, 서울, 1977.
8. 안옥희·신경주, 주거관리학, 학지사, 1994.
9. 공간 편집부, 도시와 건축의 중간영역, 공간, 1985.5
10. 손세관, 사회성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집합주택의 과거와 현재, 건축문화, 1998.3.
11. 이규복, 주택단지 계획에 관한 사회형태적 고찰, 주택, 1982.
12. 황기원, 주택의 환경과 공동의 생활, PLUS, 1993.5

<접수 : 2000. 5. 6>